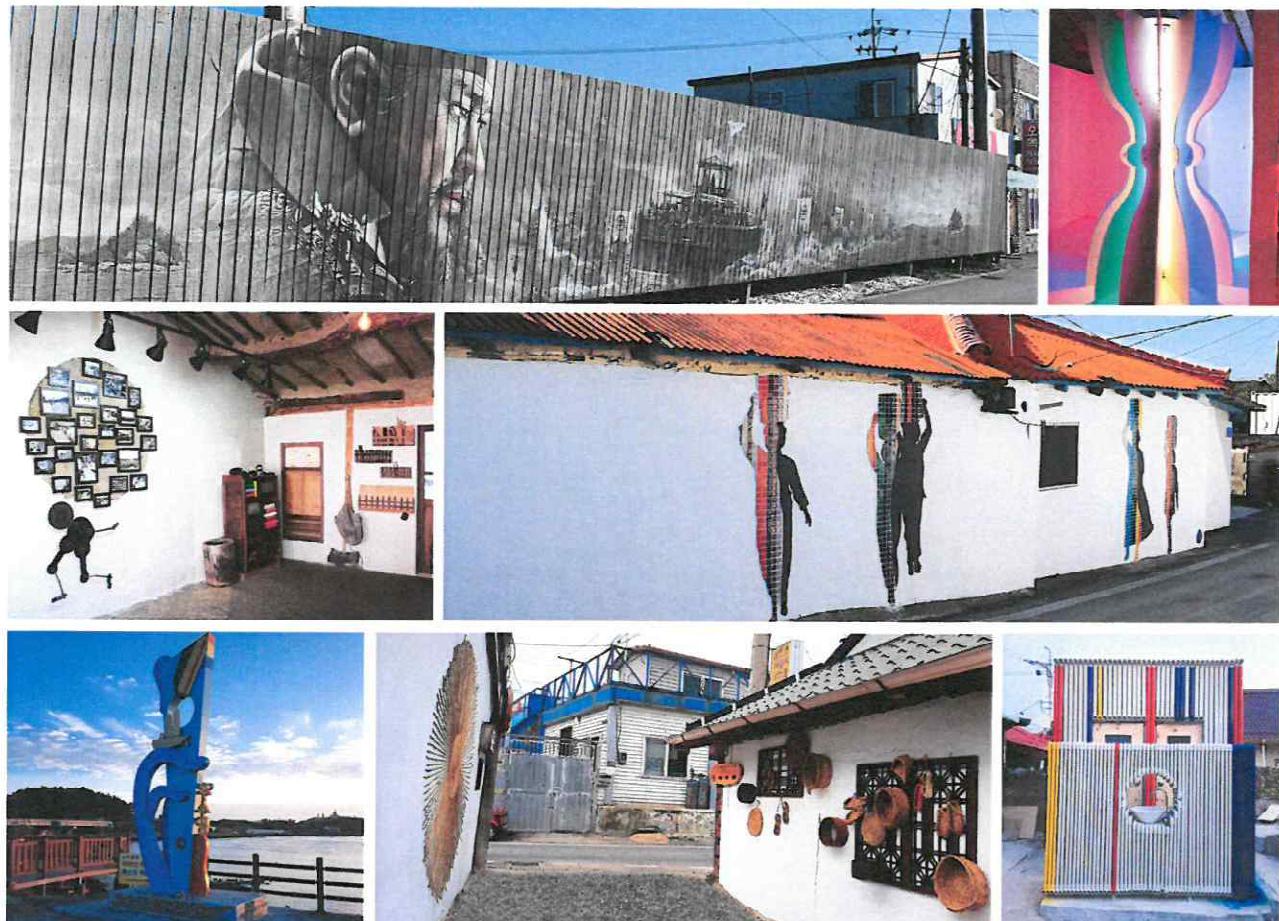




공공미술프로젝트



명랑대첩지 우수영, 문화마을로 거듭나다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소재한 우수영마을은 구국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조선 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으로 약 500년 동안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바다를 지켜온 호국의 상징이자, 명량대첩을 치렀던 곳이다. 우수영마을은 진도대교를 경계로 진도군과 맞닿아 있는 우수영은 강강술래 발상지로써 주민들이 강강술래, 부녀농요, 남자 용잽이놀이와 들소리 등 다양한 전통민속예술을 만들고 전승하는 등 예술에 깊은 조예와 탁월한 소양을 지니고 있다. 또 이곳에는 법정의 생가가 보존되고 있다. 우수영마을은 육상 교통의 발달로 선박 교통의 쇠퇴기를 맞게 되고, 1970년대 이후에 관공소와 초등학교 등의 영외 이전과 함께 1984년 진도 대교 개통으로 우수영마을은 급속히 쇠락하면서 폐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의 성공으로 이 마을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문화예술만큼은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터라 해남군과 우수영 마을주민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문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사업인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응모를 하게 된다.

야심차게 준비한 해남군은 2015년과 2016년에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당선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2017년에는 (재)아름다운맵에 "우수영문화마을-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수탁하여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수영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대안이 되길 갈망하며, 이 사업을 기반으로 전라우수영 수군진 문화와 전통문화예술 그리고 공공미술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우수영문화마을-공공미술프로젝트"
- 주제 : 소울(soul) 프로젝트
- 사업조성기간 : 2015년 ~2016년 / 마을미술프로젝트 당선
2017년 / 해남군이 (재)아름다운맵에 수탁하여 추진
- 사업대상지 : 우수영마을 일원
- 작품수 : 총 67점
- 장르 : 입체, 평면, 부조벽화, 영상, 만화, 아트하우스, 퍼포먼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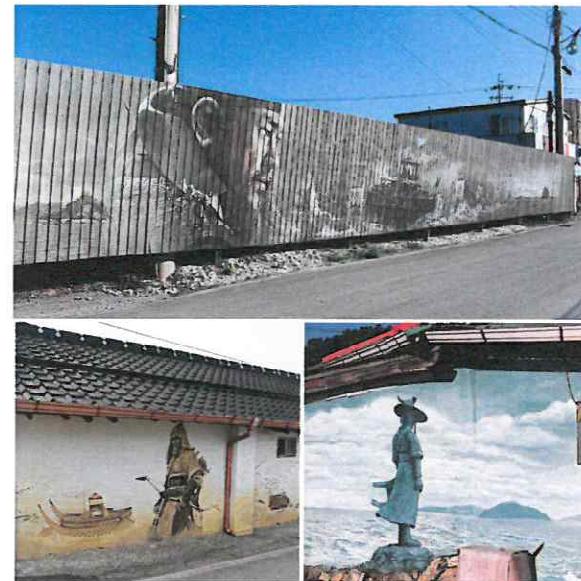
아트맵(Art Map)



① 「울돌목 - 바다가 올다」 외 4점 이강준

명랑의 승리는 하늘이 도왔다고 장군은 난중일기애 기록한다.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타고 이순신장군이 일본수군의 배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연출하였으며 조선수군의 물력 이후 수군을 재건하고 위기의 조선을 구하기 위한 장군의 고뇌와 충심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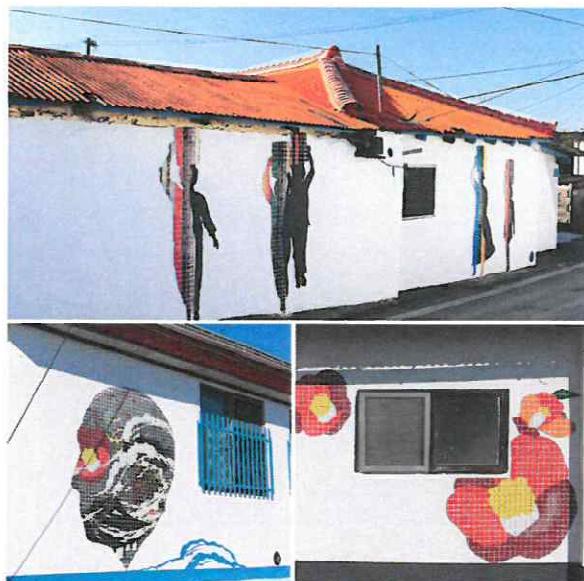
재료 - 비니본, 골덴아크릴, 1급 1층 예열전 수지, 프라이머
규격 - 2,827x230cm



② 「각인된 기억5」 외 5점 양현진

울돌목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해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듯 표현하였다. 물을 나르는 마을 여인들의 모습으로 힘들었던 각각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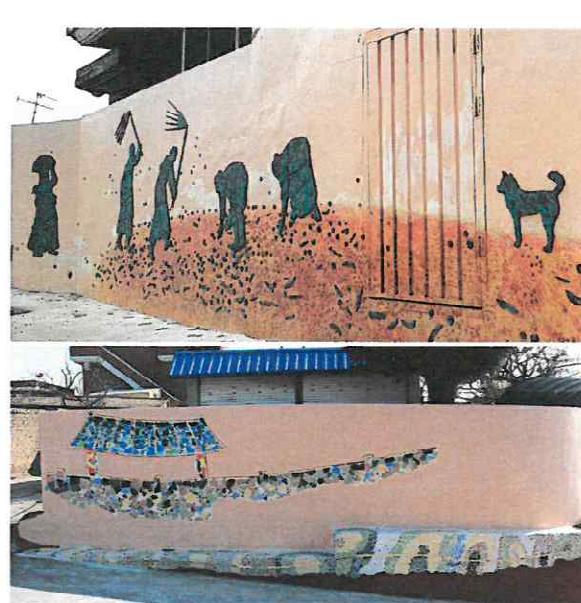
재료 - 유리, 페인트
규격 - 1,490x240cm



③ 「부녀 농요」 외 3점 이정순

전라 우수영 수군진에서 살아가던 부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남문 작품은 우수영마을의 다채로운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옛 남문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재료 - 동판, 방수합판, 부식재, 이크릴풀감
규격 - 1,200x230cm



④ 「뿌리」 나무이야기 조병철, 편승렬, 유지영

오래된 고목에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심어 키네틱 아트를 통해 관객에게 시대적 배경을 상기시켜 준다. 작품은 관객이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동안 밝게 불이 켜지면서 작품이 움직인다. 마치 베틀이 피리를 짜는 모습과 같이 움직이면서 와이어에 연결된 통나무 판이 작동하게 된다.

재료 - 철, 나무, 김속모터, 조명
규격 - 공간크기 : 11m²



⑤ 「면립상회」 땅끝하나 민영숙, 오승관, 김창수

1940년대 문내면에서 관리·운영하고 포목이 주 품목이었던 "면립상회"를 현대적이면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 포목점과 관련된 이미지를 확장하며, 지역민들의 생활유물을 전시하고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주민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의 공간을 만든 아트하우스다.

재료 - 흙진에 생활유물 및 회화 작품
규격 - 공간크기 : 43m²



⑥ 「열린공간 '복덕방'」 강은구

구. 현대부동산을 복덕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복원하여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예술적으로 시각화하며, 관람객과 마을사람들 간의 재미있는 소통을 가능케 한 작품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수영마을 주민들의 정신인 강강술래를 주민 참여형 영상작품으로 만들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복을 빌 수 있는 미디어 커뮤니티 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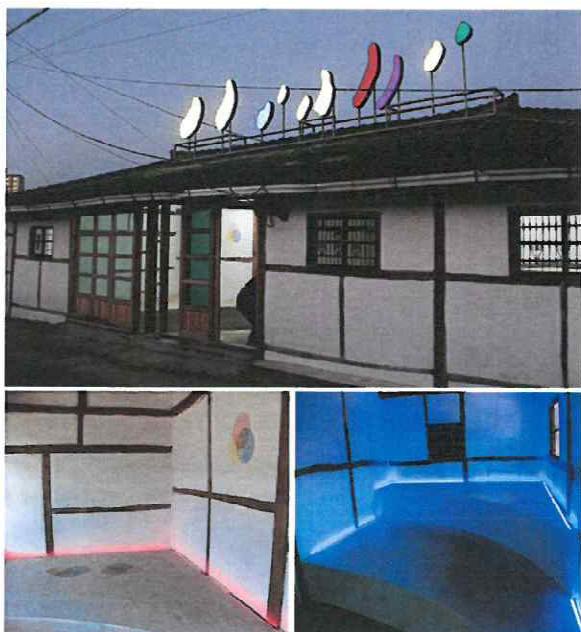
재료 - 철, 분체도장, 모니터, mini PC, 센서, 스피커, LED조명, FRP, 우레탄도장, 페인팅
규격 - 공간크기 : 32m²



⑦ 「신발 주 막담배 문방구」 조소희

'신발집', '주막', '담배 파는곳', '문방구' 등으로 기억되는 이 집은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작품은 명랑대첩의 울돌목의 물의 흐름, 강강술래의 푸른색과 원형을 모티프로 사용하여 지역의 생명력과 화합을 표현한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생명력을 건물 내·외부의 조형물과 밝으로 형성화 되었다.

재료 - LED조명, 목공, 도장, 드로잉
규격 - 공간크기 : 3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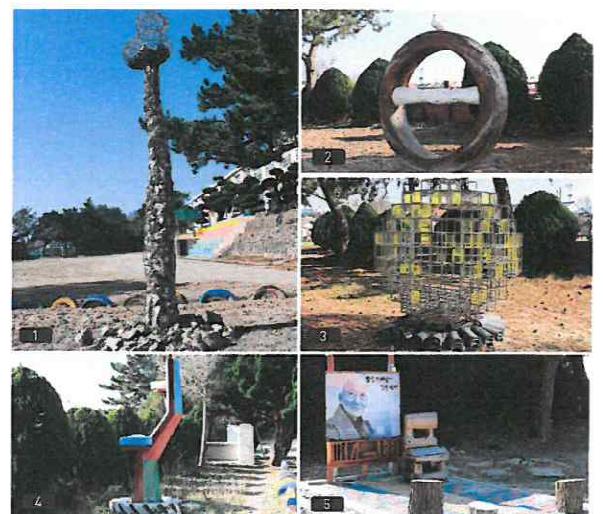


⑧ 「아트 캠프」

작가. 대학원, 대학생 포함 5팀 아트캠프는 "2015마을미술프로젝트 - 자유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작가들이 폐교가 된 곳을 '스쿨 뮤지엄'으로 만들어 예술공간으로 조성한 프로젝트다.

● 오형제 철웍소(그날의 기억), ● Special Gift (영원한 군무), ● KUMA (소월)
● 땅끝의 법칙(Ide의 움츠리), ● 무소유(선배에게 길을 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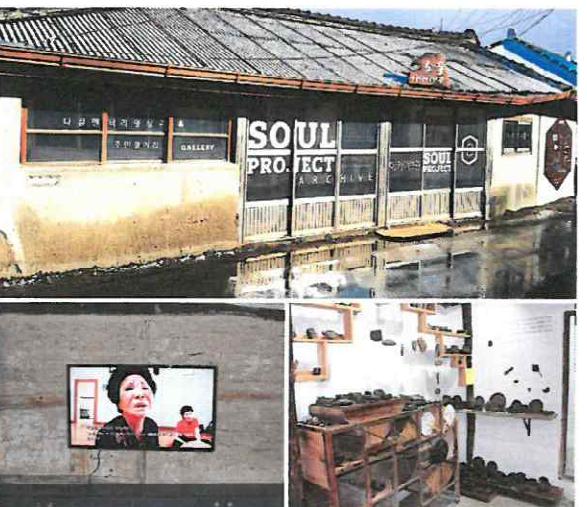
1 스테인리스 스틸, 콘크리트 파쇠석, 파쇠석 70×45×350cm 2 스테인리스 스틸, 필름, 폐기와 자름 220×h260cm 3 철, 콘크리트, 방부목, 나무, 실사, 보도블럭, 점자블럭 200×400×280cm 4 각파이프, 타공판, 타이어, 자전거휠 150×150×200cm 5 포리코트, 스티로폼, CD, 목재 180×180×200cm



⑨ 「소울 아카이브관」 2015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아카이브관에는 "소울 프로젝트"의 다양한 표정들이 담겨 있다. 16팀의 작품 제작과정 사진 및 영상과 문화소통팀의 결과물인 다큐멘터리 영상관과 주민갤러리로 조성하였다. 다큐멘터리 영상관은 문화소통팀이 우수영 마을에 6개월간 상주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해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채록하고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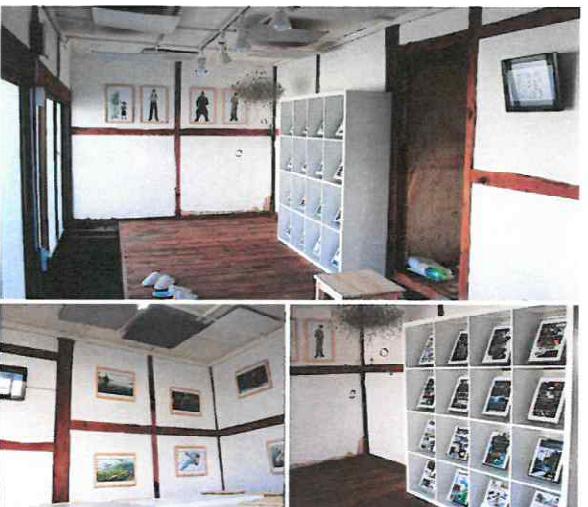
재료 - 사진, 영상, 주민작품 등
규격 - 1,400×470×250cm



⑩ 「올다, 피다, 날다」 이강산

해남 우수영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쉽고 새미있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만화책에 삽입된 오리지널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만화갤러리를 조성하였다.

재료 - 만화책, 사진액자, 영상모니터 등
규격 - 공간크기 660×270cm



⑪ 「명랑대첩-우수영 민속오일장 및 문내면 10개 마을 프로젝트」 김석환

오일장퍼포먼스를 통해 시장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예술적 오감(見, 聽, 驗, 食, 売)을 느끼게하고, 예술가의 모든 역량을 지역정서와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퍼포먼스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칭찬의 퍼포머들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즉석 페인팅 퍼포먼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작품을 선물하였다.

재료 - 작가의 몸, 소품류, 페인팅 도구 등
규격 - 민속오일장과 문내면 우수영마을 전역



⑫ 「충무공이순신-일부당경 족구천부」 BQ (김기연, 임도훈)

이순신 장군의 어루 중 일부당경 족구천부(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한다는 뜻)를 표현하였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지만 명랑대첩이 이런 뜻을 잘 보여주는 중대한 전투였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인 명랑대첩이 일어난 울돌목과 이순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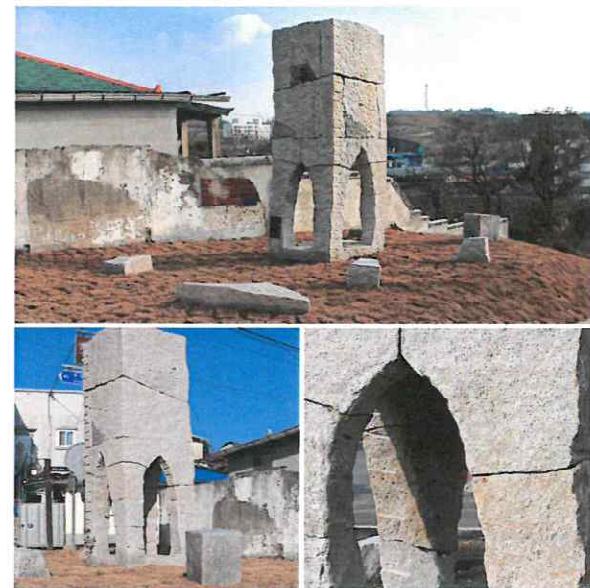
재료 - 스테인리스 스틸, 동판, 미천석, 화강석
규격 - 400×300×h300cm



⑬ 「시간의 흔적」 박상권

우수영마을의 동문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성벽의 느낌을 둘 짜임 이미지로 표현하여 오랜 시간의 흔적과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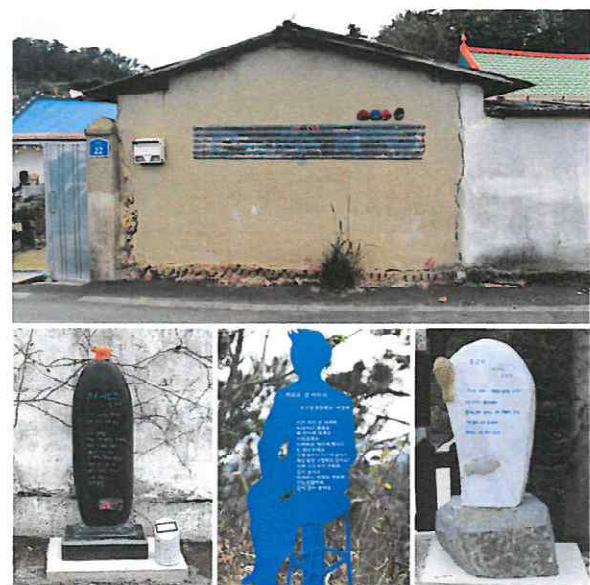
재료 - 회강석
규격 - 150×150×h360cm



⑯ 「고동에게」 외 9점 김성욱

시인 꽈재구님을 초청하여 우수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시(詩)로 표현하거나 후 채택된 10편의 시 (〈우리마을 하인별〉, 〈오래된 양철자붕〉, 〈魯고기〉, 〈고동에게〉, 〈가축 사진관〉, 〈외로운 섬 아저씨〉, 〈돌 들〉, 〈꽃 한송이〉, 〈강이자〉, 〈바다〉)를 조형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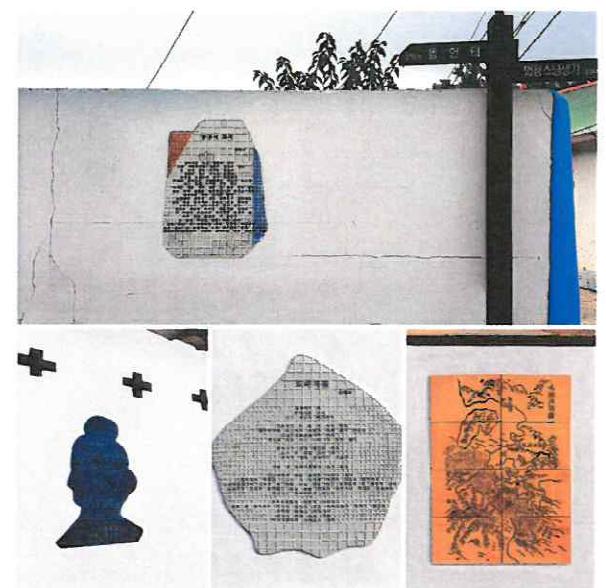
재료 - 나무, 익산대리석, 오석, 스테인리스 스틸, 암갈 슬레이트 등
규격 - 우수영마을 전역 10곳 - 40×2400×7cm



⑭ 「길 갤러리 4점」 2015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우수영마을 내 남문~동문길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4점의 아트하우스가 제작·설치되었다. 그러나 작품들 간의 간격이 멀어서 가는 길에 관객들에게 유익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자 시와 지도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꽈재구 시인의 시 3편과 명랑대첩 당시의 고지도 1점으로 공간이 연출되었다.

재료 - 유리타일, 도자기
규격 - 120×80cm 외 3점



⑯ 「지역연구·문화소통」

문화소통팀 (이유현 / 최은영 / 박세라, 한지희, 이상진)

“문화소통팀”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으로 작가들이 마을에 6개월간 상주하면서 문화교육사업을 했다. 10군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바람, 마을의 변화에 대한 기대 등을 기록했고 “보리먹떡 대회”와 “우수영 문화마을 주민 갤러리”를 개최해 커뮤니티를 극대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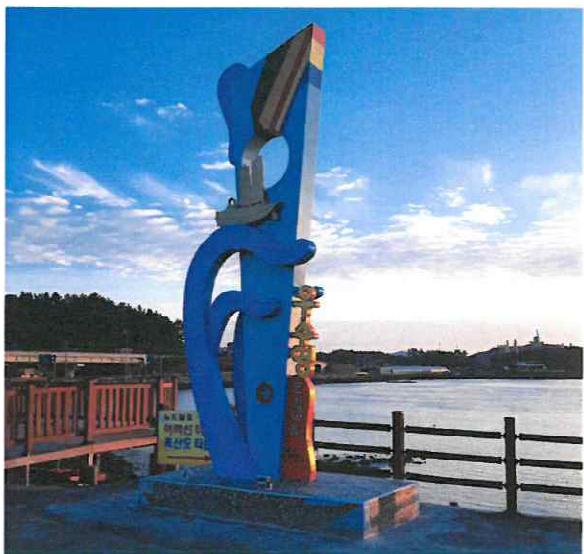
재료 - 문화교육수업, 이정표, 영상 등
규격 - 우수영마을 전역



① 「우수영 문화마을 - Soul의 시작」 김광철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상징하고 “우수영 문화마을”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가지는 이정표 역할의 작품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울퉁불퉁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판옥선을 상징함과 동시에 밝은 색상과 직선, 곡선의 적절한 어울림으로 우수영 문화마을의 밝은 미래를 표현하였고 좌대는 방문객들이 앉아 쉴 수 있고 포토존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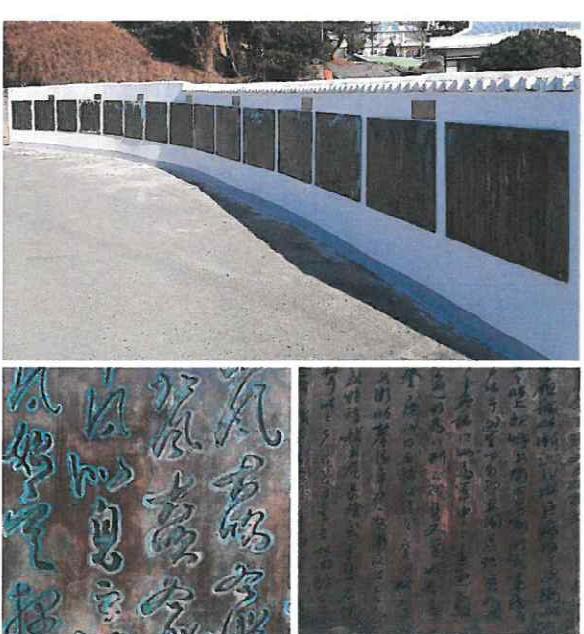
재료 - 스테인리스스틸, 아트타일, 우레탄 페인트
규격 - 3,300×1,200×6,200mm



③ 「난중일기」 정종한

과거 전쟁의 현장, 현재의 축제의 장...
그 시간의 흐름을 난중일기라는 매개체를 부식화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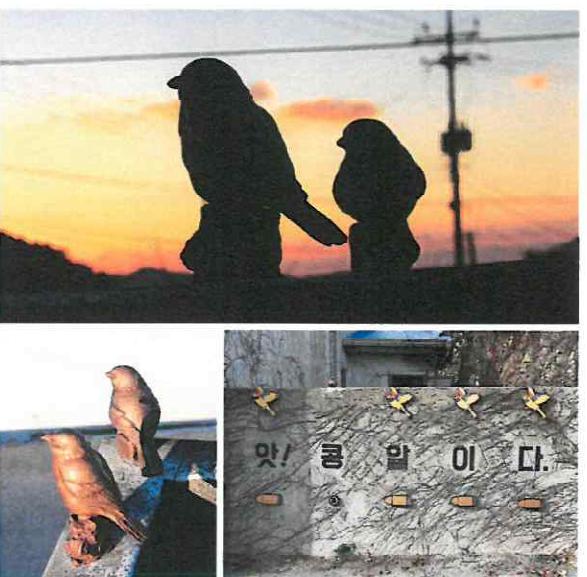
재료 - 돌판
규격 - 900×620×4T, 15ea



② 「우수영 참새들」 정경탁

친숙한 참새들을 통해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으며 우수영 문화마을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마을 곳곳에 설치된 참새로 아기자기한 불거리와 산산한 웃음을 전하는 작품이다.

재료 -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호박돌, 브론즈 참새 20마리
참새 15마리, 스텐簪새 8마리, 허수아비



④ 「샘터풍경」 홍원철

예전 물이 귀했던 우수영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길고 빨래하는 일상을 석조를 통해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재료 - 회강석
규격 - 3000×1400×1500



⑤ 「달과 강강술래」 조민철

다양한 색상의 흙을 반복적으로 다져 마음에 쌓인 역사와 시간을 표현하고, 달의 형상을 한 구조물에는 이 땅에 살다간 민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재료 - 흙, 다진, 스텐레스 스틸
규격 - 10×0.4×2.5m



⑥ 「이순신의 얼」 민혜홍

판옥선과 수군을 지휘하는 이순신장군의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작품 안에서 앉아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여 주변에 잔디를 심어 마을의 소공원을 조성하였다.

재료 - 스테인리스스틸, 나무, 우레탄 페인트, 석재, 잔디
규격 - 4,800×2,400×2,750mm



⑨ 「술래공작소」 이천기

우수영 일대에 전승·연희되는 놀이로 강강술래, 가마등, 남생아놀아리, 지와밟기 등 여러 대목 중 12개의 작품을 술래공작소에 도자벽화로 표현하였고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 하였다.

재료 - 도자타일, 목재 외
규격 - 42m² 빙집에 변형 설치



⑦ 「우수영 여행 / 삶의 길에서」 박방영

우수영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 우수영의 핫살과 자영, 꽃과 바다, 우는 바다의 물결과 이순신장군, 판옥선, 방죽선, 강강술래의 이야기 등을 문자와 상형문자식으로 표현하였다.

재료 - 동판, 스텐리스스틸, 유화물감, 아크릴칼라, 코팅제 등 (벽면 레이탈과 도색)
규격 - 3,600×1,600×50mm (베이스플레이트 : 4,200×2,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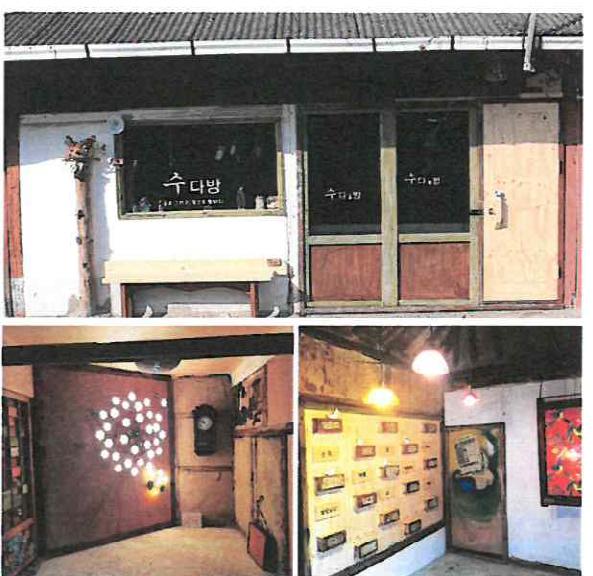


⑧ 「도담도담방 '수'다방」 이미선

옛것과 새것이 혼용된 공간연출 작품으로 작가와 마을주민의 추억을 스토리텔링하여 작품화 하였다.

수다 꽃방 : 주민과 작가가 만든 도자기 꽃 방
수다 글방 : 주민인터뷰와 조사를 통한 키워드 글과 이야기 방

재료 - 고재기둥, 폐벽돌, 기와, 고가구 재활용, 도자기, 흙, 나무
규격 - 10,400×7,520×3,000mm



⑪ 「불멸의 이순신-Soul Leader」 오승아

이순신 형상의 조형물 7개 모니터에는 마을주민이 이순신 얼굴이 되고 마을풍경이 이순신의 가슴이 되는 등 우수영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불멸의 이순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재료 - 스텐리스 스틸,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 7개 (10', 13', 24', 32'), led조명 합판 등
규격 - 18m² (메인룸 10m², 작은방 8m²)



⑩ 「소년 이순신, 바다를 꿈꾸다」 최미애

너무나 많은 시련속에서도 끗듯이 냉정함을 잊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순신 장군의 어린시절을 표현한 작품으로 노를 굳게 쥔 손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이며 멀리 바다를 향한 손은 조선의 바다 끝까지 미칠 영광 이순신의 미래를 뜻한다. 또한 야간에는 달 안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은은한 달빛을 연출, 마을 주민들에게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이정표 역할을 기대한다.

재료 - 브론즈, 스테인리스, 회강석
규격 - 2100×700×2100mm



⑫ 「커뮤니티 : 우수영 문화마을」 주민 문화공감

우수영 마을 주민들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생활문화센터에서 저녁 늦도록 북춤, 난타, 들판 등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를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우수영 5일장 커뮤니티 작품으로 계획하였다.

공연일시 - 2016년 10월 24일 ~ 12월 19일(4일, 9일 장날)
공연장소 - 우수영 5일장 상설무대 및 장터 일대



「생활사갤러리 - 제일여관(정재카페)」

과거 제일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활용하여 8개의 갤러리로 조성함



1실. 이순신 미디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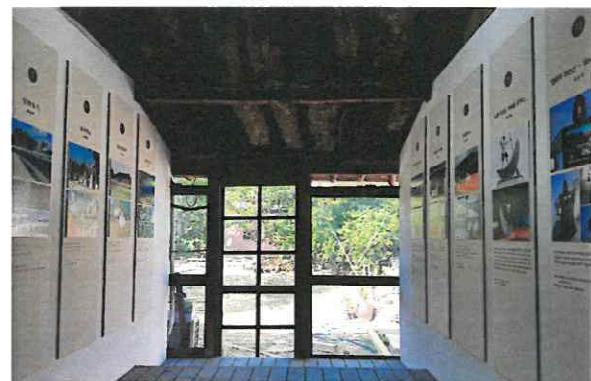


2실. 오일장 갤러리

① 「소울아카이브관」 이종필

기 조성된 아카이브관을 업그레이드 하고, 아카이브관 뒷마당은 우수영 마을에 어울리는 정취로 표현하였다.

재료 - 포맥스, 침판, 실사출력, 시트지/ 꽃나무 식재, 조형물 등
규격 - 41m²



② 「생활사갤러리두번째이야기」 한영권

기 조성된 정재카페를 확장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지자분한 담장을 게비온 담장으로 바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들어오는 입구엔 짚 공예와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미술 작품을 제작하였다.

재료 - 짚공예, 게비온담장, 고목재, 저갈
규격 - 짚공예: 650 x 250cm, 담장: 1000 x 50 x 80cm,
정재카페: 420 x 340 x 200cm, 아트샵 : 500 x 560 x 210cm



3실. 우수영 사람들



4실. 학교종이 땡땡땡

③ 「해남-물긷는 아이들」 이강준

물이 귀하던 시절 물을 길러 나르던 어린이들의 모습을 추억으로 담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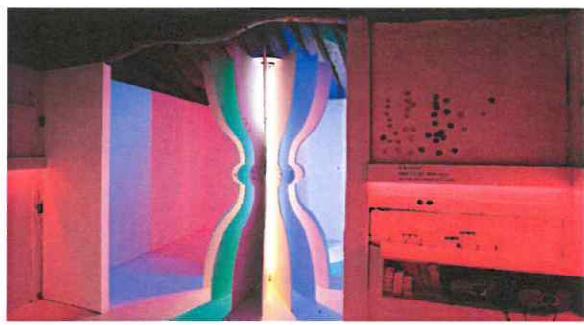
재료 - 아크릴, 페인트, 아크릴코트, 비인더, sus판, 우레탄
규격 - 1.8m x 14m



④ 「아트 화장실」 박건재

기존의 화장실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조형적인 형태를 기미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넣어 특색있는 화장실을 제작하였다.

재료 - 배관파이프, 도료, 위생도기, 세면기구 등
규격 - 240 x 120 x 2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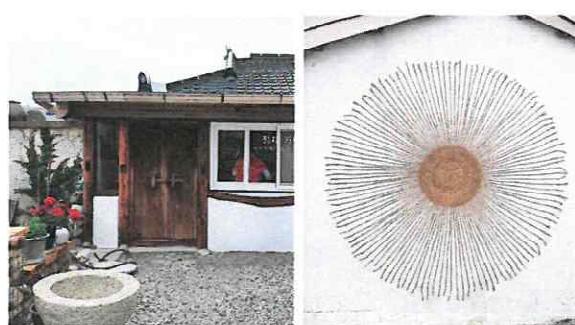
5실. 소리문화관



6실. 정재 까페



7실. 아트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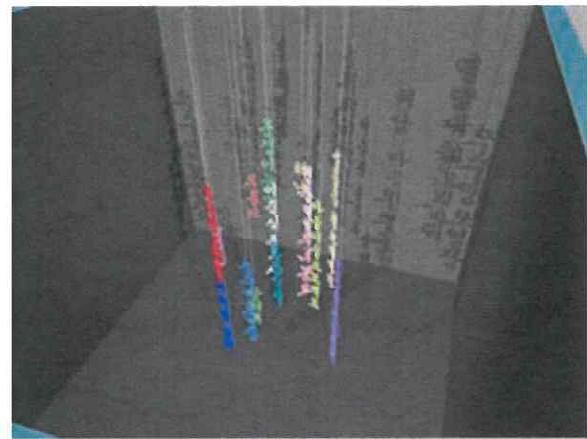


8실. 야외갤러리

❸ 「since1597-우수영 문화마을」 최문수

우수영마을의 다양한 콘텐츠를 표출해 지역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하였다.

재료 - 동판, 모터장치, 폴리카보네이트, 스텐 판, 우레탄도색, LED조명 등
규격 - 290×240-22, 290×230cm



❶ 「수군 332명 이야기」 장수익

이순신장군 외에 우수영에서 조선을 지킨 332명의 장수들을 기억하고자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재료 - 전선, 스텐파이프, 포맥스, 투명우레탄
규격 - 7,300cm × 3cm × 2,200cm



❹ 「인양루」 이강준

해남바다를 배경으로 우수영의 4대문 중 하나인 인양루의 모습을 모노톤으로 표현하여 그 시절의 모습을 담으려 하였다.

재료 - 아크릴, 페인트, 아크릴코트, 바인더, sus판, 우레탄
규격 - 1.8m×14m



우수영 마을 풍경



❷ 「울들목=삶=Lifish」 윤우승

고요와 영상을 활기시기는 이미지를 통해 보는 사람에게 쉼과 평화로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재료 - 알루미늄, 아크릴 물감, 아크레탄
규격 - 120 x 280cm



❸ 「해남영창」 이강준

과거 해남 우수영의 곡식 창고였던 "영창"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재료 - 아크릴, 페인트, 아크릴코트, 바인더, sus판, 우레탄
규격 - 1500cm X 190cm,

